

월요논단



남 동 우
해군협회 연구소장·예비역 해군 준장

제주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이후 국제무대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가 올해 여름 하와이에서 만들어졌다. 기동함대사령관인 김인호 소장이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RIMPAC(Rim of the Pacific Exercise·환태평양훈련) 2026’에서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연합해군 구성군사령관(CFMCC)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직책 수행을 넘어 우리 해군이 다국적 연합해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RIMPAC 2026, 제주 기동함대사령부의 새로운 이정표

이번 RIMPAC에는 30개국, 3만여 명의 장병, 31척의 수상함, 5척의 잠수함, 190여 대의 항공기가 참가했으며, 우리 해군도 해군·해병대 장병 700여 명과 정조대왕함·도산안장호함 등 핵심 전력이 참가했다. 특히 도산안장호함은 캐나다 잠수함 획득사업 지원을 위한 장기간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하와이로 이동해 훈련에 합류했다. RIMPAC 2026에서 가장 주목할 성과는 우리 해군이 단순한 참가국이 아니라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핵심적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김인호 소장이 맡은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은 다국적 해상전력의 운용을 계획하고 지휘하며, 참가국 합정과 항공 전력의 임무를 통합·조정하는 연합 해상작

전의 최고위 핵심 지휘관이다. 대한민국 해군이 연합 해상전력을 직접 지휘한 이번 경험은 향후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국제적 신뢰를 한 단계 높인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이번 훈련 기간 동안 대공전, 대잠전, 대함전, 상륙작전, 실사격훈련(SINKEX), 해양차단작전, 사이버 방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HADR) 등 전 영역의 연합훈련이 실시됐으며, 우리 해군 참가 전력도 다국적 연합작전에 참가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입증했다. 훈련 종료 후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열린 RIMPAC 기자회견에서 연합기동부대사령관인 미국 해군 제프리 T. 제블론 중장은 “30개국이 하나의 전력처럼 작전할 수 있

는 상호운용성은 누구도 모방하기 어려운 비대칭적 우위”라고 평가했다. 김인호 소장도 “대한민국 해군이 연합해군구성군을 성공적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간 RIMPAC에서 축적한 경험과 참가국 간 신뢰가 쌓인 결실”이라고 밝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참가 기록이 아니라 이번 훈련에서 얻은 연합지휘 경험과 작전·전술, 정보공유 절차와 HADR 협조체계를 우리 해군의 교리와 교육·훈련체계에 충실히 반영하는 일이다. 경험은 기록될 때 자산이 되고, 교육·훈련으로 연결될 때 전력이 된다. 이번 RIMPAC 2026의 성과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추경 신속 집행으로 민생 활력 마중물 돼야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 후 첫 편성된 추경안이 진통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다. 다만 추경의 10%가 넘는 571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정부에 반납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또 감골시설현대화사업 집행 잔액을 정산하지 않아 FTA 기금 85억원의 교부금이 중단될 상황에 놓여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확정된 추경은 기정예산 8조 132억원보다 4615억원, 5.76% 늘어난 8조4747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6조9667억원, 특별회계는 1조5080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 155억원, 국고보조금 598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310억원, 내부거래 1839억원으로 마련했다. 도의회는 일반회계에서 버스준공영제 운영 29억원 및

제주·청다오 항로 운영 손실보전 7억원 등 총 194억8257만원을 감액했다. 감액된 예산은 1차 산업 지원과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 주민숙원사업 등에 증액 반영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에서 1억7500만원을 감액해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앞으로 3개월 안에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로 도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도내 가게대출이 한 달 만에 1400억원 늘면서 대출 잔액이 16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가계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 추경이 적기에 투입돼 민생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열린마당

천상의 선물, 모유수유!



홍 경 미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매년 8월 첫째 주는 ‘세계모유수유 주간’이다. 처음 아기에게 전해지는 선물인 모유는 영양 공급을 넘어 엄마와 아기를 이어주는 사랑의 연결고리이자 평생 건강의 출발점이다.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태어난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모유는 아기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양 공급원이다. 면역력을 높여 감염을 예방하고 성장과 두뇌 발달

을 돕는다. 또한 엄마에게는 산후 회복을 촉진하고 유방암과 난소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모유수유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해야 하는 건강 실천이다. 수유 친화적 환경, 올바른 정보 제공,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함께할 때 엄마들은 보다 편안하게 모유수유를 이어갈 수 있다. 제주보건소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임산부를 위해 모유수유 교육과 상담, 출산·육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엄마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지역사회의 지지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모유수유 주간을 맞아 모유수유를 엄마만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가족과 직장,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응원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민생·성장 집중

위 지사 국비확보 전략회의 고 교육감 “현장 목소리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2027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 위성곤 제주도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7월 말 기준 정부예산 반영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중앙부처·기획예산처 질충전락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50개 주요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실·국별 국비 반영 현황과 주요 쟁점, 향후 대응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 위 지사는 “기획예산처 3차 예산심의를 앞둔 만큼 정부예산안 반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핵심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실·국이 중앙 절충에 힘써달라”고 강조. 오소범기자 김지은기자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제주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고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오전과 오후, 제주시·서귀포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를 잇따라 만난 뒤 IB 교육정책과 장애학생 통합교육, 예술교육 활성화, 원도심학교 지원 등 교육 현안을 논의. 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 파트너다.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하나하나를 소중히 검토하겠다”며 소통 취지에 방점.

김민석, 총리 때 무엇을 했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달 30일 제주를 찾아 민주당 차원의 제주 지원을 담은 ‘민주 제주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광주가 5·18을 딛고 새로운 경제의 성지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제주도로도 4·3이라는 무겁고 깊은 상처를 딛고 더 큰 평화와 번영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2공항,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항공좌석 부족, 4·3 역사 왜곡 등 제주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도민들이 정치인들의 이런 약속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거철만 되면 여야 정치인들은 경쟁하듯 제주를 찾아 비슷한 약속을 쏟아낸다. 김 전 국무총리가 진정으로 제

주에 관심이 있었다면, 총리 재임 시절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항공좌석 부족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간 협의를 직접 주재하거나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할 수도 있었다. 성수기 항공 좌석 공급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이끌 수도 있었다. 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와 기후에너지환경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사업 추진이나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를 주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주 현안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국무총리 주제 대책회의나 특별 지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와 다시 제주 현안 해결을 약속하는 모습을 도민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는 의문이다. 김 전 총리는 이제 말이 아닌 결과로 도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전주이씨 여숙(향년 7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저변을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8월 3일

남 편 백경사
아 들 백근영
딸 백승미
혜원
혜정

며느리 김지은
사 위 이승찬
송상현
이성필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6년 6월 17일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거 해산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6년 9월 10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8월 3일

주식회사 에이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안로 216(도두일동)
정산인 현승남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골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8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모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칼라강판
조립식건물
녹슬고
비새는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